

[aoxkim@smu.ac.kr](mailto:aoxkim@smu.ac.kr)

011-798-1688, 041-550-5130, 041-584-0628,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갑골문 東夷 관련 기록과  
先秦 문헌상의 ‘九黎’ 등을 통해 살핀  
‘高句麗’ 명칭의 문화적 내면\*

金經一\*\*

1. 들어가기
  2. 東夷와 高句麗 관련 명칭
    - (1) 東夷 관련 명칭
    - (2) 高句麗 관련 명칭
  3. 東夷와 高句麗 명칭의 연속성
    - (1) 九와 句, 그리고 高
    - (2) 夷와 黎, 그리고 麗
  4. 맺는 말
- 【參考文獻】  
【ABSTRACT】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27-A00521).”

\*\* 祥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教授

## 1. 들어가기

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殷代 갑골문의 東尸와 巫九 명칭, 西周, 春秋戰國 시대 金文 등 東夷 관련 기록을 근거로 高句麗 명칭의 전신으로 이해되고 있는 先秦 문헌 속의 九黎, 高夷 등 명칭의 형성 과정을 음운학적, 문자학적 방법 등을 통해 분석, 高句麗 명칭 안에 숨겨진 문화적 내면을 밝혀보기 위해서이다.

필자는 갑골문과 金文, 先秦 문헌 등에 나타나는 東夷 관련 명칭과 기록들을 살피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명칭들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李學勤이 지적하고 있듯이 분명 先秦 문헌의 기록들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들이 아니기에 어느 순간 이들 명칭들은 새로운 맥락 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자료들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商 왕실과 人方과의 전쟁 관련 기록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東夷 명칭의 전신이 『甲骨文合集』 ‘8401反’에 보이는 東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sup>1)</sup> 이 연구에서 필자는 尸와 夷의 문자학적, 음운학적 연관 관계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그 후 갑골문과 金文, 그리고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갑골문에 보이는 東尸의 명칭이 東夷 명칭의 기원임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東夷라는 명칭 내면에는 한 종족에 대한 단순한 이름 짓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 문화적 내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sup>2)</sup>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위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자세히 살핀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1) 金經一, 「‘人方’ 관련 卜辭를 통해 고찰한 東夷 명칭의 기원」 『中國學報』 (제38집, 1998.6) 547-567쪽

2) 金經一, 「殷代 甲骨文을 통한 東夷 명칭의 기원 ‘東尸’ 연구」 『中語中文學』 (第39輯, 2006) 21-46쪽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결국 東夷의 명칭이 殷代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東夷 명칭의 상한선을 『後漢書』 「東夷傳」 으로 두고 있는 한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sup>3)</sup>에 대한 수정이기도 하다. 殷代 갑골문은 아니지만 王國維는 일부 西周 金文을 근거로 『周易』에 등장하는 鬼方과 東夷의 관계를 연결 짓는 「鬼方昆夷獫狁考」를 발표한 바 있다.<sup>4)</sup> 王國維는 이 논문에서 東夷와 관련한 명칭이 金文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후속 연구는 없었다. 그 후 傅斯年은 王國維의 연구 등을 근거로 「夷夏東西說」<sup>5)</sup>을 발표하게 된다. 「夷夏東西說」은 동북 발해 지역 난생 설화의 연관성을 들어 東夷와 高句麗가 동일한 문화권에 속했을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는 논증을 위해 先秦 문헌 속에서 東夷와 高句麗의 중복되는 활동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亳, 博, 薄 등의 지명들이 음운학적으로 동일한 맥락 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갑골문이나 金文 등의 지하사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적절한 학문적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傅斯年은 東夷와 高句麗가 동일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자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그동안 진행해왔고 살펴왔던 관련 연구를 이렇게 요약하는 이유는 문헌에 보이는 東夷 명칭을 징검다

3) 范曄(398-445)의 「東夷傳」은 그 이전 陳壽(233-297)가 지은 『三國志』의 「魏書」 「烏丸鮮卑東夷傳」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烏丸鮮卑東夷傳」이 東夷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高句麗, 夫餘 등과 관련한 기록이 주된 내용인지라 「東夷傳」의 내용에 비해 東夷와 관련한 묘사가 더 상세하다. 하지만 이것이 『後漢書』 「東夷傳」을 근거로 東夷 명칭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4) 『中國上古史論文選集』上, (臺北: 華世出版社, 1979) 577-590쪽

5) 이 논문은 1935년 발표되었다. 논문의 인용과 분석에서 다소의 오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傅斯年은 東夷의 문화적 실체를 중국문화 기원의 이원설 주장의 핵심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傅斯年은 논문에서 동북 발해 지역 난생 설화의 연관성을 들어 東夷와 高句麗가 동일한 문화권에 속했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중국문화 기원의 이원설을 제시한 이 논문은 당시 중국은 물론 해외 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의 주 4) 1979, 519-576쪽]

리로 高句麗의 명칭을 殷代 갑골문의 東尸 명칭과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高句麗 명칭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高句麗의 명칭을 여진어 계열의 고어가 반영된 형태로 보는 견해이다. 李丙燾는 ‘高’는 훈독자로 ‘숯’을 의미하고, ‘句麗’는 음독자로 ‘고을’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高句麗를 ‘수릿골’ 또는 ‘술골’로 보고 있다.<sup>6)</sup> 李丙燾의 연구는 高句麗 명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핀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골’의 음절은 CVC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末音節 음독자로 ‘麗’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三國史記』내의 197개 高句麗 지명 모두가 末音節 음독자로 ‘麗’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근거<sup>7)</sup>를 놓고 볼 때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李丙燾의 설명은 ‘高’와 聲母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관련 假借 명칭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다른 갈래는 高句麗의 다른 명칭인 ‘句麗’ 등을 근거로 高句麗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로 연변대학교의 강맹산<sup>8)</sup>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진석은 ‘句麗’는 高句麗의 약칭으로 高句麗는 하나의 국가로 발전되어 왔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sup>9)</sup> 사실 강맹산의 주장은 주로 東漢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는 高句麗 관련 몇몇 명칭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박진석의 반론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박진석의 연구가 高句麗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명칭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음운학 등을 이용한 과학적

6) 「高句麗國號考」『論文集』, (vol. 3, 1956) 1-14쪽

7) 이정룡 『高句麗 地名 表記 研究-末音節 음독자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

필자는 위 논문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197개의 지명 모두의 末音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결과 ‘麗’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일이 없다.

8) 「高句麗족 초기의 두개 高句麗 국가」『동방학지』, (vol. 91, 1996) 1-11쪽

9) 「高句麗國號考」『高句麗研究』, (第21集, 2005) 455-473쪽

인 분석 없이 단순히 어휘의 유사성을 들어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문제의 외형은 마치 당시의 高句麗 어음을 근거로 한 분석과 한 자어의 분석이 만든 두 가지 불협화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논란의 핵심은 전혀 다른 차원의 두 가지다. 하나는 高句麗와 관련한 명칭들이 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高句麗와 東夷를 둘러싼 다양한 명칭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자적, 음운학적, 그리고 문화적 연결 고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즉, 다양한 명칭들이 지니고 있는 상하좌우를 연결하고 있는 고문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이제 분석을 통해 증명해 가겠지만 사실 高句麗의 명칭은 東夷의 명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2. 東夷와 高句麗 관련 명칭

### (1) 東夷 관련 명칭

현재까지 필자가 자료들 통해 확보한 東夷 관련 명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東夷 문화권<sup>10)</sup>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東夷라는 統稱이 있다. 다른 하나는 東夷 문화권을 형성했던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개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명칭들이 있는데, 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淮夷, 馮夷, 藍夷 등의 各稱이 있다. 그리고 이들 各稱을 숫자적으로 통합해 부르는 또 하나의 統稱, 九夷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중국

10)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東夷族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史書와 학자들의 일방적인 기술로, 여기에는 東夷 문화의 방대한 세력과 범주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한 심각한 토론 없이 東夷族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

문헌에 나타난 이들 統稱들에 대해 관련 문헌의 원문들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명칭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관련 명칭들의 관계를 근거로 상세하게 논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東夷 명칭이 맨 처음 나타난 문헌은 『後漢書』「東夷傳」으로 내용 자체의 제목을 東夷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東夷의 명칭은 앞에서 기술했듯이 갑골문에 보이는 東尸와 음운학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즉, 東夷라는 統稱의 근거는 殷代 갑골문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형태의 東夷 명칭이 다른 문헌들에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에 해당된다.

東方曰夷- 동방에 夷가 있다.<sup>11)</sup>

東辟之民曰夷- 동쪽 변두리의 백성들은 夷라 불리운다.<sup>12)</sup>

東夷九國也- 동이는 아홉 개의 나라이다.<sup>13)</sup>

夷, 東方之人也- 夷는 동방 사람이다.<sup>14)</sup>

東夷 명칭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夫餘의 시조 東明의 출생 기사를 담고 있는 『論衡』에 보이는 橐離 명칭이다. 한국어 발음으로 탁리로 불리는 명칭이다. 내용을 보자.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有氣如大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북쪽 夷인 橐離 나라 왕의 비첩이 임신을 하자 왕이 죽이려 했다. 그러자 그녀가 ‘커다란 알 같은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로 인해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sup>15)</sup>

필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았지만 중국 학계는 물론 한국의 학계에도 이 橐離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1) 『周禮』「夏官: 直方氏」, 『禮記』「王制」

12) 『大戴禮記』「千乘」

13) 『國語』「魯語」韋昭注

14) 『說文解字』‘夷’字條

15) 「吉驗篇」

橐離는 東夷 명칭의 또 다른 가차 표기로 마찬가지로 東夷를 의미하는 統稱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東夷의 東의 갑골문 글꼴은 양쪽을 묶은 형태의 보따리 또는 주머니의 상형문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선행 논문에서 현존하는 갑골문과 金文 글꼴들의 비교를 통해 충분한 분석을 진행했었다.<sup>16)</sup> 그런데 고문자 학자 徐仲舒는 고대 문헌에서 방향사 東 대신에 양쪽을 묶은 형태의 보따리 또는 주머니 모양을 나타내는 橐이 가차자로 사용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그 이유가 東과 橐이 雙聲 관계이기 때문임을 증명했다.<sup>17)</sup> 사실 東의 상고음 성모 \*t-는 端紐이고 『詩經』등 고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橐의 상고음 성모 \*tʰ-는 透紐로 모두 舌尖中音에 속해<sup>18)</sup> 旁紐雙聲 관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환이 된다. 이러한 설에 대한 고문자 학계의 의견은 물론 일치한다. 고문자 학계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가차자 호환 현상은 橐離를 東離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필자는 앞으로 東夷 관련 연구에서 橐離 명칭 역시 ‘東+夷’ 구조를 지닌 새로운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문헌에는 마찬가지로 東夷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표현을 바꾼 九夷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九夷의 명칭이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문헌은 『竹書紀年』<sup>19)</sup> 「夏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앞의 주 2)

17) 徐仲舒는 글꼴의 모습과 橐과 東의 음운학적 연관, 즉 雙聲 관계임을 들어 두 문자의 호환 상황을 설명했다.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3010쪽

18) 李珍華, 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1쪽 東, 349쪽 橐 부분 상고음 부분 참조.

19) 서기 281년, 즉 晉 武帝 太康 2년 汲郡(지금의 河南 汲縣)에서 도굴꾼에 의해 발굴된 『竹書紀年』(지명을 따서 『汲冢紀年』이라고도 부른다)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국 시대 魏나라때 만들어진 역사서다. 즉 夏, 商, 西周, 春秋를 거쳐 전국 시대 魏나라 襄王 20년(B.C 299)까지의 역사가 대단히 간략한 편년체로 서술된 책이다. 그러나 원본은 소실되었고, 南宋 때에 다시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竹書紀年』이 전해오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남북조를 거쳐 北宋 때까지의 문헌

后芬即位, 三年, 九夷來御, 曰 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 后芬이 즉위한지 3년에 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등 아홉 夷가 御<sup>20)</sup>를 하러(를 위해)왔다.<sup>21)</sup>

『竹書紀年』九夷의 명칭과 관련 기술에서 보듯이 九夷는 아홉 종류의 夷를 뜻한다. 이러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문헌은 역시 앞서의 『後漢書』「東夷傳」이다.

---

에 인용되어 온 『竹書紀年』의 기록들이 당시 읽히던 『竹書紀年』의 내용과 다른 것을 알게 된 淸의 朱右曾은 이들 인용문들을 모아 『汲冢紀年存眞』을 편찬하게 된다. 이를 본 王國維는 다시 갑골문과 金文을 인용 『古本竹書紀年輯校』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竹書紀年』을 흔히 ‘今本’ 『竹書紀年』이라고 부른다.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古本竹書紀年輯校』본이다. 『竹書紀年』의 가치는 그 기록들이 갑골문, 今文을 기준으로 볼 때 『史記』등 후대의 문헌보다 정확하다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까지 『竹書紀年』의 기록은 정통 역사서인 『史記』등의 권위에 밀려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었으나 갑골문의 발견으로 오히려 후대 문헌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方詩銘, 王修齡, 『古本竹書紀年輯證』, (上海: 古籍出版社, 1981) 1-3쪽 참조.

이와는 달리, 버클리리 Keightley 같은 학자는 이른바 ‘古本’ 『竹書紀年』이 殷 왕실의 족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 -David N. Keightley “The Bamboo Annals and Shang-Chou Chronology”, *Ha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8, 1978) pp.423-438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갑골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竹書紀年』에 담긴 殷 왕실의 관련 기록은 갑골문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값진 것이며 특히 본문이 다루고 있는 九夷의 명칭이나 東夷 관련 기록의 경우, 다른 문헌들이 전하지 못하는 귀중한 사실을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문헌적 가치를 의심하기 힘들다.

20) 御는 갑골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수확, 날씨, 전쟁 등에서 혼령의 보호를 요청하는 제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후대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潛夫論』, 「贊學」: 黼黻之章, …可御于王公.- 아름다운 의복과…을 왕공에게 선물했다.

21) 앞의 주 3)



夷有九種-夷에는 아홉 종류가 있다.<sup>22)</sup>

九夷의 명칭은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데, 『竹書紀年』에서와는 달리 이들에서는 구체적 各稱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문헌에 전해지고 있다.

九夷之國, 莫不賓服.-아홉 개의 夷 나라 중 복종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sup>23)</sup>

九夷, 八狄, 七戎, 六蠻, 謂之四海.- 아홉 개의 夷, 여덟 개의 狄, 일곱 개의 戎, 여섯 개의 蠻을 사해라 부른다.<sup>24)</sup>

周公旦攻九夷而商蓋(奄)伏.- 周公 旦이 九夷를 공격하니 商에 속해 있던 奄이 항복을 했다.<sup>25)</sup>

이들 九夷의 명칭은 음운학적 굴절을 통해 다른 문헌에서는 또 다른 가차자를 사용한 명칭으로 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夷와 음운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黎가 사용된 九黎가 있다. 九黎 명칭이 담긴 가장 이른 문헌은 『戰國冊』 「秦冊」이다.<sup>26)</sup> 이 九黎의 명칭 문제를 풀지는 못했으나 九黎가 東夷 세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최초로 언급한 학자는 앞서 소개했던 傅斯年이다.<sup>27)</sup> 九黎의 명칭은 또 『國語』등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九黎亂德, .....三苗復九黎之德.-九黎가 정세를 어지럽혔다. ....三苗가 九黎의 정권을 회복시켰다.<sup>28)</sup>

苗民卽九黎之後- 苗족 백성들은 九黎의 후예이다.<sup>29)</sup>

---

22) 앞의 주 3)

23) 『墨子』 「非攻中」

24) 『爾雅』 「釋地」

25) 『韓非子』 「說林, 上」

26) 『戰國冊』 「秦冊」 馬誘注에 보인다. 또 『經典釋文』 「呂刑下」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볼 수 있다.

27) 앞의 주 5) 345쪽

28) 『國語』 「楚語下」

29) 『尚書正義』 「呂刑」

## (2) 高句麗 관련 명칭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高句麗라는 명칭이 맨 처음 나타난 문헌은 『三國志』이다.<sup>30)</sup>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三國志』에는 高句麗의 명칭과 함께 句麗의 약칭도 함께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잠시 뒤에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현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명칭들을 살펴본다.

- 高句麗<sup>31)</sup>
- 高句驪<sup>32)</sup>
- 駒驪<sup>33)</sup>
- 句驪<sup>34)</sup>
- 句麗<sup>35)</sup>
- 高夷<sup>36)</sup>
- 稟離<sup>37)</sup>
- 下句驪<sup>38)</sup>

한국과 중국의 고대 문헌에 나타난 高句麗 명칭의 특징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등 국내 문헌의 경우 기본적으로 /高/, /句/, /麗/ 3 음절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의 사서들은 위에 제시한 것에서 보듯이 일정하지 않다. 즉, 앞의 인용과 각주에서 보듯이 『三國志』 「高句麗傳」에서는 /高/, /句/, /麗/의 3 음절 어휘를 사용하고 있

30) 『三國志』 「高句麗傳」

31) 『三國志』 「高句麗傳」, 『漢書』 「地理志」, 『魏書』 「高句麗傳」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三國遺事』

32) 『漢書』 「地理志」, 『後漢書』 「本紀」

33) 『尚書』 「周官-傳」

34) 『後漢書』 「本紀」, 「地理志」, 「東夷傳」

35) 『逸周書』, 『三國志』 「東夷傳」, 『魏書』 「高句麗傳」

36) 『逸周書』 「王會篇」

37) 『三國志』 「夫餘傳」

38) 『漢書』 「地理志」

지만 후대의 문헌인 『漢書』, 『後漢書』, 『魏書』 등은 같은 책안에서 때로는 3 음절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句/와 /麗/, /句/와 /驪/, /駒/와 /驪/ 또는 /高/와 /夷/, /橐/와 /離/ 등 2개의 음절로 된 명칭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대조된다.

앞서의 소개에서 보듯이 『漢書』의 경우는 3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高句麗의麗를 때로驪로 사용하기도 하고, 『尙書』 「周官」의傳에서는 句를駒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李丙燾는 한 漢代에 이민족들의 명칭에 동물 관련 문자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39)</sup> 즉, 타민족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문자로 드러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정서는 漢代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활동했던 傅斯年의 경우도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 「夷夏東西說」에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를 인용하면서麗를驪로 표기해 ‘高句驪本紀’라 쓰고 있다.<sup>40)</sup>

이는 설사 의도적이지 않다 해도 결국 중국인들의 高句麗 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 내지는 배타적 의식이 高句驪 또는 句驪, 駒驪의 표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중국인들의 高句麗 민족에 대한 배타적 의식은 漢代의 王莽이라는 인물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의도적으로 高句麗를 폄하하기 위해 下句驪라는 명칭을 만들어낸다. 관련 기록을 보자.

莽...下書曰...其更名高句驪爲下句驪-왕망이 ... 글을 내려 ‘이름 高句驪를 下句驪로 고치라’고 명했다.<sup>41)</sup>

39) 앞의 주 6) 2쪽

40) 앞의 주 5) 522쪽. 傅斯年이 어떤 판본의 『三國史記』를 참고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最古의 판각본인 中宗 壬申刊本(세칭 正德本)에 분명히 高句麗로 명기되어 있어 傅斯年의 표기는 무의식적으로 중국인들의 배타적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三國史記』(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影印篇 3쪽

41) 『漢書』 「王莽傳」

王莽이 高의 대칭으로 下를 사용하고 있음은 王莽이 高句麗가 자신들의 명칭 앞에 붙인 高의 사용을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은 당시 高句麗의 일반적 명칭이 句麗, 句驪, 駒驪 또는 高夷, 稟離 등 2 음절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또 高句麗의 명칭 앞에 붙은 高가 高句麗가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붙인 접두사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3세기 무렵의 漢代 주석가인 應劭가 高句麗의 지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故句驪胡’ 즉, ‘옛 句驪 오랑캐’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sup>42)</sup> 서도 재확인된다. 즉, 중국의 사서들은 때로 高句麗 자신이 사용하는 3 음절 명칭을 외교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단순하게 나라의 이름만을 부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高句麗 명칭의 핵심이 句麗 등의 2 음절어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2 음절어 명칭들은 음운학적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음절의 성모가 모두 상고음에서 舌根音 중 見紐, 즉 \*k-로<sup>43)</sup>, 두 번째 음절의 성모는 舌尖中音 중 來紐, 즉 \*l-로<sup>44)</sup> 구성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2 음절의 高句麗 명칭이 가차의 가능성을 근거로서로 다른 문자로 호환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낸다 하겠다. 이러한 이해는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高句麗 관련 명칭들에 대한 분석에 대단히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1. 들어가기’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강맹산은 漢代 주석가인 應劭가 高句麗의 지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故句驪胡’라는 표현을 한 것을 근거로 과거에 句驪와 高句麗 두 개의 독립된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sup>45)</sup> 하지만 이는 高句麗 관련 명칭 전체에 대한 일관적인 이해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42) 『漢書』「地理志」, 玄菟郡 高句麗縣

43) 앞의 주 18) 113쪽, 275쪽 참조

44) 앞의 주 18) 37쪽, 140쪽 참조

45) 앞의 주 8)

한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漢書』, 『後漢書』, 『魏書』등이 같은 책 안에서 때로 3 음절 명칭을 때로 2 음절 명칭을 병행한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견해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 3. 東夷와 高句麗 명칭의 연속성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東夷와 高句麗는 다양한 별칭들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用字法인 가차 현상 때문이다. 한자의 음과 韻의 연계를 근거로 자유롭게 진행되는 가차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東夷와 高句麗와 관련된 수많은 별칭들을 오해하게 된다. 또는 그것이 관련된 별칭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고대 문헌에 보이는 이러한 가차 현상은 사실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음 또는 諧音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수 많은 가차자들에 대해 王力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이 자신에게 익숙한 글자를 떠올리게 되는 用字 심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sup>46)</sup> 이제 전개될 東夷와 高句麗 관련 명칭들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진행된다. 즉, 필자는 문헌에 등장하는 東夷의 별칭 九夷와 九黎의 첫 번째 음절 九를 高句麗 명칭의 핵심 부분인 句麗의 句의 전신으로 본다. 그리고 九夷의 두 번째 음절 夷와 九黎의 두 번째 음절 黎를 句麗의 두 번째 음절 麗의 전신으로 본다. 이제 이와 관련한 문화적, 문자학적, 음운학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九와 句, 그리고 高

---

46) 王力, 『中國言語學史』, (香港: 中國圖書, 1984) 27-28쪽

앞에서 잠시 살펴 본 바처럼 東夷를 지칭하는 또 다른 별칭으로 문헌들은 九夷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九夷의 九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東夷의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된 것은 『竹書紀年』이다. 이제 그 내용을 원문을 통해 살펴본다.

(帝相)元年, 征淮夷.- 帝相 원년에 淮夷를 정벌했다.  
 二年, 征風夷及黃夷.- (后相) 2년에 風夷와 黃夷를 정벌했다.  
 后相卽位, 二年, 征黃夷.- 后相 즉위 2년에 黃夷를 정벌했다.  
 (相)二年, 征黃夷.- (后相) 즉위 2년에 黃夷를 정벌했다.  
 (后相)七年, 于夷來賓.- (后相) 7년에 于夷가 賓<sup>47)</sup>을 위해(으로) 왔다.  
 後少康卽位, 方夷來賓.- 후에 少康이 즉위하자 方夷가 賓을 위해(으로) 왔다.  
 后芬卽位, 三年, 九夷來御, 曰 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后芬이 즉위한지 3년에 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등 아홉 夷가 御<sup>48)</sup>를 하리(를 위해)왔다.

47) 일반적으로 갑골문에서는 賓은 혼령을 인도하는 제사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賓은 일반적으로 왕이 친히 진행하게 된다.

丙子卜, 卽貞: 王賓上甲燎, 無尤.- 병자일에 정인 卽이卜을 하면서 묻습니다. 왕이 조상 上甲을 부르기 위해 燎祭를 지내려 합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합 25247)

이와 달리 후대 문헌에서는 손님 또는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儀禮』「士冠禮」: 主人再拜, 賓答禮.- 주인이 두 번 절을 하면 손님은 답례를 한다.

『史記』「五帝本紀」: 諸侯咸來賓從.- 제후들이 모두 와 복종을 했다.

이렇게 볼 때, 『竹書紀年』이 사용하고 있는 賓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정짓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竹書紀年』자체의 기록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후대에 확대된 의미 보다는 갑골문에 보이는 ‘혼령을 인도하는 제사’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竹書紀年』이 戰國 시대의 문헌임을 상기해 볼 때 후대의 의미인 복종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지명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48) 위의 賓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御의 본의와 후대의 의미 모두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御는 갑골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수화, 날씨, 전쟁 등에서 혼령의 보호를 요청하는 제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후대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潛夫論』「贊學」: 黼黻之章, …可御于王公.- 아름다운 의복과…을 왕공에게 선물했

洛伯用與河伯馮夷鬪.- 洛伯의 用에 對항해 河伯과 馮夷가 함께 싸웠다.

后泄二十一年, 命吠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后泄 21년에 吠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를 명했다.

帝泄二十一年, 加吠夷等爵命.- 帝泄 21년에 吠夷 등에게 작위 임명을 내렸다.

后發即位, 元年, 諸夷賓于王門, 再保庸, 會于上池, 諸夷入舞.- 后發 즉위 원년, 여러 夷들이 왕궁 입구에서 賓을 했다. 다시 성벽을 보완하고<sup>49)</sup> 上池에 모여, 여러 夷들이 들어오며 춤 제사를 진행했다.<sup>50)</sup>

仲丁即位, 征于藍夷.- 仲丁이 즉위하고 藍夷를 정벌했다.

河亶甲整即位, 自蠲遷于相. 征藍夷, 再征班方.- 河亶甲 整이 즉위하고 蠲에서 相으로 옮겼다. 藍夷를 정벌한 후, 다시 班方을 정벌했다.

51)

위의 기록들을 토대로 東夷 관련 各稱을 종합해 보면 吠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淮夷, 馮夷, 藍夷 등 12개의 명칭을 얻을 수 있다. 즉, 『竹書紀年』의 기록을 토대로 본다면 東夷 문화권은 적어도 12개의 작은 세력들 또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統稱에서 살펴본 九夷의 九는 구체적 숫자가 아닌 막연한 상징적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後漢書』「東夷傳」에는 吠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의 아홉 명칭이 보인다. 그리고 이들 아홉 명칭은 『竹書紀年』이 전하고 있는 명칭들의 차례와 동일하다. 단지 마지막의 淮夷, 馮夷, 藍夷만이 다를 뿐이다.

東夷, 九夷 등의 統稱과 달리 이들 各稱들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명+夷’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선행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즉, 各稱을 구성하고 있는 吠, 于, 方, 黃, 白, 赤, 玄, 風, 陽, 淮, 馮, 藍 등 12개 중 吠,

다.

49) 庸을 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再保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현재로는 없다.

50) 이상 『竹書紀年』「夏紀」

51) 이상 『竹書紀年』「殷紀」

于, 方, 黃, 白, 赤, 玄, 風, 陽 등 9개가 모두 殷代 갑골문에서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 갑골문 기록들과의 대조 분석을 통해 밝혔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馮夷는 앞의 風夷의 동일 가차자임을 밝혔고 藍夷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 문헌을 확보하지 못해 분석을 보류했었다.<sup>52)</sup>

『後漢書』「東夷傳」에 보이지 않는 淮에 대한 분석 역시 위 논문에서 진행한 바 있지만<sup>53)</sup> 그 동안 확보된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잠시 더 살펴보기로 한다. 淮는 갑골문에서 佳를 初文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명칭으로 ‘西淮夷’와 ‘北淮夷’가 제4기 때의 갑골문에서 발견된다.<sup>54)</sup> 그런데 殷代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는 ‘南淮夷’의 표현이 西周 金文에 나타난다.<sup>55)</sup> 이를 통해 『竹書紀年』에만 나타난 淮夷의 淮는 함께 등장한 다른 명칭들과 같이 하나의 특정한 지명을 나타내기 보다는 淮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竹書紀年』에 보이는 12개의 東夷 관련 지명 중 淮夷가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馮夷와 風夷가 가차자를 통한 동일 지명인 것으로 본다면 전체의 지명은 10개가 된다. 여기서 문헌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있는 藍夷의 존재를 잠시 접어둔다면 『竹書紀年』과 『後漢書』「東夷傳」에 보이는 東夷 관련 各稱은 결국 9개의 공통집합으로 수렴된다.

고대 지명의 특성상 이러한 분석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으나 여러 문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九夷, 九黎의 九와 殷代 갑골문,

52) 金經一, 「갑골문 '巫九'와 『竹書紀年』등에 보이는 '九夷'와의 관계 연구」 『中國學論叢』(第十輯, 2000) 1-26쪽

53) 앞의 주 31) 21쪽

54) 乙巳卜, 惟西(佳의 자형이 불확실)人?- 을사일에 복을 합니다. 淮水 서쪽의 ‘人方’을 (정벌할 수 있을까요?)

乙巳卜, 惟北佳人?- 을사일에 복을 합니다. 淮水 북쪽의 ‘人方’을 (정벌할 수 있을까요?)(습32906)-제4기

위 갑골문에서의 人方은 후대 문헌 속의 夷와 호환된다. [앞의 주 31) 참조]

55) 「虢仲盥蓋」 ‘虢中以王南征, 伐南淮夷.- 仲의 신분인 신하 虢이 왕을 수행하여 남쪽을 정벌했다. 淮水 남쪽의 夷 세력을 정벌했다.’ 華東師範大學中國文學研究與應用中心, 『金文引得-西周篇』, (廣西: 廣西教育出版社, 2002) 339쪽



그리고 『竹書紀年』, 『後漢書』 「東夷傳」 등에 나타난 이들 9개(또는 10개)의 명칭 사이에는 분명 감추어진 문화적 내면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갑골문에서 확인되는 東夷 관련 지명은 모두 9개이다. 그리고 『竹書紀年』과 『後漢書』 「東夷傳」 과의 교차 분석을 통해 9개의 중복되는 各稱을 확인하게 되었다. 殷代 갑골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각각의 왕조가 산발적으로 남긴 기록이기에 그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갑골문의 기록이 후대의 문헌인 『竹書紀年』과 『後漢書』 「東夷傳」 내의 기록들과 이처럼 들어맞는 현상은 이들 기록들에 보이는 9 개의 東夷의 各稱들이 깊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해내려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殷代 갑골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9 개의 東夷 各稱들은 결국 당시 東夷의 세력권이 약 9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商 왕실은 때로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권으로의 東夷를 상대해야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9개의 독립된 세력들을 개별적으로 맞닥뜨리기도 했어야 했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갑골문들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들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록들이다.

…今巫九…人方? …오늘…, 人方<sup>56)</sup>을 담당하는 아홉 巫가 (저주의 제사 등을 진행) …人方을 (정벌해도 되겠습니까?)- (합36503)-제5기  
 …貞: 今巫九<sup>九</sup>, 惟余<sup>九</sup> …?…求…求‘人方’? 上下于<sup>九</sup>示, 受余祐?…于大邑商無禍? 在<sup>九</sup>. … 묻습니다. 오늘… 人方을 담당하는 아홉 巫가 (저주의 제사 등을 진행), 商 왕인 내가 술로 지내는 제사를 지내며 …? …人方을 정벌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할까요? 하늘과 땅에게 제사를 지내면 商 왕인 내가 보호를 얻을까요? … 가장 큰 행정 구역 商에 화가 없을까요? <sup>九</sup> 지역에서. (합36507) 제5기  
 …卜, 貞: 今巫九…人方?…率<sup>九</sup>…九…九? 余…比侯…? …복을 하면서 묻습니다. 오늘… 人方을 담당하는 아홉 巫가 (저주의 제사 등을 진행)…人方을 …? …? 商 왕인 내가 연맹 관계의 부족장을 거느리고…?

56) 갑골문에서 東夷는 제1기 때는 東尸로 표기되며 제5기에서는 人方으로 표기됨. 앞의 주 1), 2), 32), 34) 참조

위의 갑골문들은 商 왕실이 東夷와의 전쟁을 위해서 특이하게도 아홉 명의 전문 무당인 巫九를 동원하며 특별 제례를 진행하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巫九의 표현은 다른 종족과의 전쟁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東夷와의 전쟁과 아홉 명 무당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필자는 이들 아홉 무당이 東夷의 아홉 개 부족, 즉 九夷의 세력을 주술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된 전문 무당임을 밝혀내게 되었다.<sup>57)</sup> 결국 『竹書紀年』과 『後漢書』「東夷傳」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9개의 各稱과 다른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九夷, 九黎 등의 명칭 속에 담긴 九는 문화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東夷의 各稱을 의미하는 九가 高句麗의 핵심 명칭인 句麗의 句와 음운학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九의 상고음 성모는 見紐에 속하고 재구음은 \*k-<sup>58)</sup>이다. 句의 상고음 성모는 見紐에 속하고 재구음 역시 \*k-<sup>59)</sup>로 九와 동일하다. 즉, 두 문자는 雙聲으로 가차의 조건이 된다. 또 九의 상고음 韻母는 幽韻에 속하고 句는 侯韻에 속하지만 두 글자 모두 \*-i-의 韻腹을 지니고 있어<sup>60)</sup> 疊韻이 된다. 결국 句가 九를 대신하는 현상은 음운학적인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句의 또 다른 명칭인 駒 역시 가차에 의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駒 역시 句와 마찬가지로 상고음의 성모는 見紐, 운모는 侯韻에 속해 句의 음과 동일하며 단지 句가 去聲인데 반해 駒는 平聲인 것만이 다르다.<sup>61)</sup> 결국 동음 가차인 것이다.

이번에는 九夷의 별칭으로 나타난 高夷에 대해 살펴보자. 高夷는

---

57) 앞의 주 32)

58) 앞의 주 18) 415쪽

59) 앞의 주 18) 113쪽

60) 앞의 주 18) 113쪽, 415쪽

61) 앞의 주 18) 90쪽

앞서 잠시 명칭만 소개했지만 사실 周代의 역사적 편린을 담고 있는 『逸周書』에서만 단 한 차례 나타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成周之會, .....北方台正東, 高夷曠羊- 東周의 수도 洛陽에서 펼쳐진 교역 자리에서..... 북쪽 경계를 나타내는 누각의 동쪽 방향에 거주하는 高夷와 뿔이 넷 달린 양을 교역했다.<sup>62)</sup>

위의 기록은 洛陽 북동쪽에 위치한 세력에 대한 당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逸周書』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高夷는 물론 九夷 명칭의 가차적 전환 때문이다. 高의 상고음 성모는 見紐, 재구음은 \*k-로<sup>63)</sup> 九, 句와 일치한다. 반면에 상고음 운모는 宵韻으로 幽韻에 속하는 九의 상고음 韻母나 侯韻에 속하는 句와 다르다. 하지만 宵韻과 幽韻의 상고음 재구음은 모두 \*-u로 韻尾가 동일하다. 즉, 旁轉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疊韻이 된다. 결국 高가 九, 句를 대신하는 데 아무런 음운학적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는다. 高의 九, 句와의 음운학적 연계는 『逸周書』의 내용을 설명한 晉代 孔晁의 주석에 의해 다시 한 번 증명된다. 孔晁은 高夷가 高句麗라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

高夷, 東北夷, 高句麗.- 高夷는 동북에 거주하는 夷로 高句麗이다.<sup>64)</sup>

孔晁의 이러한 주석에 대해 현대의 『逸周書』학자 黃懷信 역시 궁정을 표하고 있다.<sup>65)</sup> 즉, 高夷 역시 九夷의 또 다른 별칭인 것이다. 高夷의 명칭은 앞서 소개한 『三國志』 「夫餘傳」의 稟離와 맥을 같이 한다. 稟는 기본적으로 高를 聲符로 하고 있는 형성자이므로<sup>66)</sup> 高

62) 『逸周書』 「王會篇」 328쪽

63) 앞의 주 18) 275쪽

64) 『逸周書』 「王會篇」 晉 孔晁注, 앞의 주 9) 3쪽 재인용. 孔晁이 정확하게 西晉 시대 인물인지 東晉 시대 인물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의 주석은 漢代 이후 4-5 세기경 중원에서의 高句麗와 관련한 명칭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65) 『逸周書』 「王會篇」 329쪽

66) 木을 형부로 高를 성부로 한다.-從木高聲. (『說文解字』 稟字條)

와 호환될 수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曩의 상고음 성모는 溪紐로 高의 見紐와 다르다. 즉, 高의 상고음 재구음은 \*k-이지만 曩의 상고음 재구음은 \*k<sup>h</sup>-이다. 하지만 두 음 모두 발음부위가 동일한 설근음으로 旁紐雙聲 관계가 이루어져 문자 호환에 역시 문제가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東夷 문화권이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명칭 九夷의 九와 高句麗를 의미하는 句麗의 句가 결국 동일한 언어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九와 句는 高夷의 高, 曩離의 曩와 가차의 환경 속에서 나타난 동일한 문자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들 명칭의 두 번째 음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夷와 黎, 그리고 麗

앞서 언급했듯이 東夷 명칭의 전신은 東尸이다. 이러한 견해는 夷는 尸의 가차자임이 분명해야 가능해진다. 이들 문자의 전환 과정에 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 관련 기록과 음과 글꼴을 근거로 자세히 다룬바 있다.<sup>67)</sup> 따라서 모든 과정을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夷와 黎, 그리고 麗로 이어지는 연관 관계를 보다 분명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음운학적인 특성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尸의 상고음 성모는 書紐로 재구음은 \*c-이다.<sup>68)</sup> 그리고 夷의 상고음 성모는 餘紐로 재구음은 \*ʃ-이다.<sup>69)</sup> 따라서 얼핏 보기에 두 음은 별개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음, 즉 書紐, 餘紐는 모두 舌面前音으로 동일한 발음 부위를 지니고 있어 旁紐雙聲 관계가 된다. 또 王力の 11類 29韻 古韻說을 근거로 보면 上古音에서 尸

67) 앞의 주 1), 2)

68) 앞의 주 18) 45쪽

69) 앞의 주 18) 46쪽

의 성모는 書紐이고 夷의 성모는 喻紐로 분류된다. 하지만 많은 上古音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夷는 보다 구체적으로 喻紐 四等に 해당된다. 그리고 喻紐 四等은 上古音에서 舌頭音인 定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王力의 입장을 통해 보아도 夷의 성모는 결과적으로 舌面音의 성모 書紐를 지닌 尸와 발음 부위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게 된다. 이로써 尸와 夷는 충분한 가차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더구나 尸와 夷의 상고음 운모는 모두 脂韻에 속한다.<sup>70)</sup> 결국 尸와 夷는 단순한 가차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殷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尸가 후대 문헌 속의 東夷, 九夷 그리고 高夷의 夷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번에는 앞서 다루었던 東夷 관련 명칭과 高句麗 관련 명칭의 두 번째 음절들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되는 것들은 橐離와 橐離의 離, 九黎의 黎, 高句麗와 句麗의 麗, 高句驪와 下句驪 그리고 駒驪와 句驪의 驪가 있다. 이제 이들 문자들의 음운학적 특성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離를 보자. 離의 상고음 성모는 來紐로 재구음은 \*l-이다.<sup>71)</sup> 그리고 黎의 상고음 성모 역시 來紐로 재구음은 \*l-이다.<sup>72)</sup> 이 점은 麗의 경우에도 동일해서 상고음 성모는 來紐이며 재구음은 \*l-이다.<sup>73)</sup> 驪의 경우는 麗를 聲符로 하는 형성자이기에 麗와 가차가 가능한 것이 당연한데, 그 상고음 성모는 물론 來紐이며 재구음은 \*l-이다.<sup>74)</sup> 결국 橐離, 橐離의 離, 九黎의 黎, 高句麗, 句麗의 麗, 高句驪, 下句驪, 駒驪, 句驪의 驪는 성모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雙聲문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문자들의 의미와 글꼴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음에 있어서는 완전한 호환이 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상고음 來紐 성모의 재구음 \*l-은 앞의 夷의 상고음 餘紐

70) 앞의 주 18) 45, 46쪽

71) 앞의 주 18) 37쪽

72) 앞의 주 18) 120쪽

73) 앞의 주 71)

74) 앞의 주 71)

성모의 재구음 \*ʃ-와 호환된다. 실제로 앞서 王力이 喻紐로 분류하고 있는 夷의 상고음 성모를 많은 고음학 학자들은 零聲母로 간주하고 있다.<sup>75)</sup> 이 내용을 풀어 말하면 東夷의 夷와 橐離, 橐離의 離, 九黎의 黎, 高句麗, 句麗의 麗, 高句驪, 下句驪, 駒驪, 句驪의 驪가 음운학적 맥락 안에서 통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夷와 이들 문자들이 통용될 수 있는 관계는 지금 설명한 성모를 근거로 한 雙聲의 관계뿐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夷의 상고음 운모는 脂韻에 속한다. 그리고 離를 제외한 黎, 麗, 驪의 상고음 운모는 모두 支韻이다.<sup>76)</sup> 脂韻의 경우는 상고 재구음이 \*-ei이고 支韻은 \*-e로 모두 동일한 韻腹을 공유하고 있어 對轉 관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두 韻은 음운학적으로 연결이 자연스러워진다. 離의 경우는 상고음 운모가 歌韻이지만 歌韻과 支韻은 楚辭 등 고대 문헌에서 자주 압운이 되는 韻이다.<sup>77)</sup> 특히 중고음에서 대부분 支韻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離를 夷와 黎, 麗, 驪 등의 문자와 자연스럽게 문자와 함께 동일한 음운학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을 해 보면 위에서 살펴 본 문자들의 성모와 운모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호환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 즉, 殷代의 尸로부터 후대 문헌들의 夷, 離, 黎, 麗, 驪는 성모와 운모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음운학적으로 동일한 맥락 안에서 가차자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5. 맺는 말

필자는 殷代 갑골문의 東尸 명칭이 후대 문헌 속에 등장하는 東夷 명칭의 기원임을 밝힌 선행 논문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먼저 東夷의 명칭은 단순한 하나의 종족의 명칭이 아니라

75) 張炳麟이나 黃侃 등이 이에 속한다. 앞의 주 18) 101-102쪽 참조

76) 앞의 주 18) 37쪽, 120쪽

77) 林倫倫, 「粵西閩語的音韻特徵」 『語文研究』, (第2期, 1998) 참조

거대한 문화권을 지칭하는 統稱임을 먼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東夷의 명칭이 음운학적 맥락 속에서 橐離라는 가차 명칭으로도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문화권 안에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세력권이 존재했었고 이들 모두 나름의 各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들 아홉 개의 各稱들이 九夷라는 명칭으로 다시 통합해 불리고 있었으며 이들이 『竹書紀年』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음운학적 맥락 속에서 九黎의 가차자도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즉, 九夷 명칭 속의 九는 단순한 상징적 숫자가 아닌 東夷의 문화권 속에 존재했던 아홉 개의 세력권을 의미하는 문화적 숫자임을 밝혀냈다.

논문은 또 高句麗 명칭의 핵심이 2 음절어임을 밝혀냈다. 그 첫 번째 음절은 舌根音 \*k-의 성모를 지니고 있고 두 번째 음절은 \*l-, 또는 \*l-과 가차가 되는 성모를 지니고 있음을 분석해 냈다. 이 분석을 근거로 東夷 문화권의 다양성을 증명하는 九夷 명칭의 九가 음운학적 연관성 속에서 高夷의 高, 橐離의 橐, 句麗, 句驪의 句, 駒驪의 駒 등으로 가차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 東夷의 夷가 九夷의 夷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은 물론, 九黎의 黎, 橐離의 離, 高句麗, 句麗의 麗, 高句驪, 下句驪, 駒驪, 句驪의 驪로 가차가 가능한 운모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과정 속에서 논문은 高句麗의 핵심 명칭, 즉 句麗가 殷代 갑골문에 보이는 東尸, 즉 東夷에서 만들어진 九夷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바꾸어 말하면 高句麗 명칭의 기원이 殷代 갑골문의 東尸, 즉 東夷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高句麗의 기원전 37년 설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 셈이다. 즉, 高句麗 명칭의 문화적 출발이 漢代를 넘어 戰國 시대, 春秋, 西周를 거쳐 殷代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가 高句麗의 문화적 영역 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정밀한 고증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시기 존재했던 고구려 관련

명칭들이 어떠한 문화적 환경과 지정학적 특성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本书编写组, 『金文今译类检』, (广西: 广西教育出版社, 2003)
- 陳彭年 等修, 『廣韻』,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
- 郭沫若, 『两周金文辞大系图录考释』, (上海: 上海书店, 1999)
- 郭沫若, 『殷周青铜铭文研究』, (人民出版社, 1954)
- 郭沫若, 『金文丛考』, (人民出版社, 1952)
- 何林仪, 『战国文字通论』, (北京: 中华书局, 1989)
-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初集: 上·下』,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2002)
- 黃天樹, 『殷虛王卜辭的分類與斷代』北京大 博士學位論文, (臺灣: 文津出版社, 1991)
- 劉堯漢, 『中國文明源頭新探』,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1993)
- 李方桂,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80)
-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82)
- 李珍華 等,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 馬承源, 『西周青銅器銘文選』, (北京: 文物出版社, 1988)
- 饒宗頤, 『甲骨文通檢』總4冊, (香港: 中文大學, 1989-1995)
-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99)
-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人民出版社, 1986)
-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社會科學院出版社, 1985)
- 王力, 「上古音」『王力文集』,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9)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 (北京, 世界圖書出版, 2000)
- 姚孝遂肖丁合著, 『小屯南地甲骨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5)
- 姚孝遂主編, 『殷墟甲骨刻辭類纂』, (北京: 中華書局, 1989)
- 姚孝遂主編, 『殷虛甲骨刻辭摹釋總集』, (吉林: 吉林大學古籍研究所叢刊之五, 1988)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 張世超等, 『金文形義通解』, (香港: 中文出版社, 1996)
- 周法高, 『金文詁林』, (香港: 香港中文大學, 1974)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殷周金文集成』, (北京: 中華書局, 1984-1995)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小屯南地甲骨』, (北京: 中華書局, 1983)
- 강선,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유철, 「中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國家的 整體性」 『고구려연구』, (vol. 18,



- 2004) 13-55쪽
- 박경철, 「濊貊, 夫餘와 高句麗의 整體性에 關한 研究」 『고구려연구』, (vol. 18, 2004) 497-531쪽
- 박성봉, 「韓國의 研究史를 통해서 본 高句麗 整體性 問題」 『고구려연구』, (vol. 18, 2004) 193-226쪽
- 박원길, 「高句麗와 柔然, 突厥의 關係」 『고구려연구』, (vol. 14, 2002) 9-25쪽
- 박준호, 「『三國史記』 러시아어 翻譯本과 高句麗 整體性」 『고구려연구』, (vol. 18, 2004) 183-191쪽
- 서영대, 「韓國 史書에 나타난 高句麗의 整體性」 『고구려연구』, (vol. 18, 2004) 85-100쪽
- 孫進己, 「高句麗考古研究綜述」 『고구려연구』, (vol. 12, 2001) 111-193쪽
- 윤명철, 「高句麗의 古朝鮮 繼承性에 關한 研究」 『고구려연구』, (vol. 13, 2002) 81-105쪽
- 이성재, 「北韓의 高句麗史 研究와 歷史 認識」 『고구려연구』, (vol. 18, 2004) 227-247쪽
- 이원배, 『高句麗 ‘東明’ 王號의 成立過程과 性格』,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인영, 「高句麗 地名의 地名 語尾에 대하여」 『日本研究』, (27, 2006) 163-181쪽
- 임기환, 「고구려본기 전거 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21-77쪽
- 최남희, 「고구려 지명에 반영된 고구려 한자음과 어휘 고찰」 『새얼 語文論集』, (16, 2004) 207-238쪽
- 최중호, 「고구려말의 어음 /어/에 대해-지명의 지명 어미에 대하여」 『동남어문 논집』, (21, 2006) 207-223쪽

#### 【ABSTRACT】

Central to this paper is a hypothesis that 'Kuryo(句麗)' the core part of name 'Kokuryo(高句麗)' is derived from the name 'Kuyi(九夷)' which means nine kinds of Yi(夷) tribes.

In a previous article 'A Study on the Word 'Dongshi (東尸)', the Origin of the Name 'Dongyi(東夷)' i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of the Yin Dynasty', I proved

that the name 'Dongshi(東尸)' in Yin Oracle Bone Inscriptions was the origin of 'Dongyi(東夷)'. In another previous article 'A Study on relation of 'JiuWu(九巫)' of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and 'JiuYi(九夷)' of the "ZhuShuJiNian(竹書紀年)"etc.', I also verified that the 'Dongyi(東夷)' was sometimes called 'Kuyi(九夷)' which meant 'Yi(夷)' consisted of nine kinds of tribes. This record reveals the possibility that the 'Dongyi(東夷)' also consisted of nine tribes.

In this context, I argue that 'Kuryo(句麗)', the core part of name 'Kokuryo(高句麗)' was originated from 'Kuyi(九夷)'. To prove the phonetic relationship between 'Kuryo(句麗)' and 'Kuyi(九夷)', this paper conforms that the initial of 'Ku(句)' and the initial of 'Ku(九)' have same reconstructed consonant \*k-, so 'Ku(句)' of 'Kuryo(句麗)' and 'Ku(九)' of 'Kuyi(九夷)' can be converted due to the phonetic loan phenomenon 'Jiajie(假借)'. In rhyme field, 'Ku(句)' and 'Ku(九)' also can be exchanged because of same final, same main vowel. As for 'Yi(夷)' and 'Ryo(麗)' two characters also can be exchanged because not only are their initials close but their finals belong to same rhyme group.

영문 제목: A Study on the Cultural Meaning of the Name 'Koguryo(高句麗)', based on 'Dongyi(東夷)' in the Oracle-Bone Inscriptions and 'Kuryo(九黎)' in the Pre-Qin Documents

Key-word: Oracle-Bone Inscriptions, Dongshi-东尸, Kuyi-九夷, Kuryo-九黎, Koguryo-高句麗, Cultural meaning, Pre-Qin Documents

\* 주제어: 甲骨文, '东尸', '九夷', '九黎', '高句麗', 명칭, 文化적 의미